

## IG건설(주)IG양주자이현장

###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하고 일할 맛나는 일터로

**길**을 나서면서부터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엄청난 비가 내린다. 이번엔 내리는 비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장마가 막을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엄청난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장마의 몸부림에도 이렇듯 지 않고 무재해 준공을 위해 매진하는 곳이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양주시 천보산 자락에서 환경 친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IG양주자이현장(유재욱 소장)이 바로 그곳이다.

매경으로부터 환경친화적 건설현장 인증과 2003년도에 IG건설(주)이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 현장은 1차에서 7차까지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로, 총 72개동에 초·중·고교 등 연면적 162,000평에 달해 단일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현장 규모가 크고, 건설현장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위험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것이 무재해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이곳 IG자이현장이 그렇다. 무재해 3배를 달성하고 올해 목표 무재해 5배를 비롯해 무재해 8배인 무재해 준공을 위해 장대비 속에서 무재해 현장을 일구고 있다.

**인성관리로 무사고,  
무재해 현장으로**



▲ 소장 유재욱

## 건설안전리포트

조직원의 인화, 근성, 약속을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경영과 안전관리 체질화, 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를 안전경영지침으로 삼고 있는 이곳 IG양주자이현장의 유재욱 소장은 “내 안전이 곧 우리가정의 행복”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가정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아침 조회나 각종 교육에서, 심지어 사적인 자리에서까지도 당부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마음을 열리게하는 인성관리는 먼저, “웃으며먼저인사하기” 운동으로 이어진다.

웃는다는 것은 사람이 밝은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단한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고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가장 좋은 안전활동이라고 유재욱 소장은 소개한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부터 밝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중 현장 사무실에 걸려 있는 현장 배치도의 직원들 사진이 모두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뇌리에 남는다.

안전에는 가장 먼저 사람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인성관리는 안전관리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 안전도 시스템관리가 이루어져야

국내 건설현장에서 인력과 그에 따른 각종 안전관련 사항을 Data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드물다. 그러나 오늘 찾은 IG양주자이현장에 근로자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하고 있다.

신규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를 먼저 구분하고,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한 다음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BarCodeCard를 발급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카드가 있어야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모든 사항을 현장 입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현장은 몇 되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이 곳 IG양주 자이현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재철 안전과장은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은 기준이 강화되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으나, 침담화되어가는 사회적 환경에는 맞지 않게 근로자의 머리 하나하나를 헤아리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인력관리도 이제는 Data Base에 근거를 둔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전산시스템화가 우리 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남긴다.

###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안전문화는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자율안전과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먼저 변해야 하는데, 안전의식의 체질화, 생활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운동으로는 IG건설(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무재해





123운동(1초의 안전확인/24시간 안전습관/365일 안전작업)은 근로자 안전의식 개혁을 기초를 둔 안전홍보계몽운동이 있고,IG자이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일 3건 이상불안전한요인바로잡기 운동이 있다.이 모두 근로자의 안전의식 변화를 꾀하는 운동이다.

### 안전은 실천하는 것

안전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일일 안전순찰제 운영제도도 IG양주자이현장에서 매일 실천하는 안전활동으로 유재욱 소장의 일과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3km가 넘는 72개동의 현장을 발로 뛰며 자칫 불안정한 사항이 근로자를 해칠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일 안전순찰제에 동참하는 것이 유재욱 소장의 일과 중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같은 유재욱 소장을 황재철 안전과장은 “우리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현장 가족들에게 피곤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한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타협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유별나리 만큼 안전에 철저한 유재욱 소장의 행동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끝으로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인 유재욱 소장은 “안전은 곧 투자이며, 이익이다”라는 신념으로 현장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하고, “내가 이 현장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으로 준공 그날까지 다치지 않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황재철 안전과장의 말에서 IG양주자이현장을 안전하고 일할맛나는 일터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필자는 모든 현장에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재해 준공이듯 이 곳 현장에서도 무재해 준공으로 끝마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